

한인회 발전의 설계도

시드니 한인회 사무총장의 해임을 놓고 말들이 무성하다. 이번 사무총장 해임 사건의 잘잘못에 대해 나의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멜본 한인회에서 위원, 총무, 그리고 부회장의 직책을 맡아 8 년 기간을 지내온 경험에 비추어, 시드니 한인회의 문제(?)에 대해 몇 마디 거들고자 한다.

시드니 한인회와 처음 접했던 것은 1982 년 경이다. 회장을 선출하는 총회에 참석했으나 누가 회장이 되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만 확실히 기억나는 것은 무대 위에서의 심한 몸싸움과 욕설, 그리고 거친 언성들 뿐이었다. 그 때 나는 나이도 어렸고, 또 부모님 나이 또래 분들이 하는 행동들이라 별 생각은 없었고 다만 조금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그 광경을 목격하였다. 몇 년 후 사회인으로서 한 번 더 한인회 총회에 가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역시 몸싸움과 욕설의 반복이었다.

지금 시드니 한인회는 그 동안 싸여온 불신적인 이미지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남겨 있다. 나부터 이런 한인회의 모습에 거리를 멀리하고 무관심하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을 했다. 젊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한인회를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조차도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지만 이런 무관심적인 행동이 결국 우리 모두의 손해가 아닐까? 1 세들은 물론이고 나 같은 1.5 세들마저 뜻있게 참여할 수 있는 사회 활동의 무대는 한인사회이다. 나 부터도 호주사회에서 한 소수민족을 대표하여 호주사회의 인종적 예민성에 항상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보다는 우리 한인들끼리 만든 단체에서 나름대로의 힘을 키워나가는 것이 더 매력적이고 보람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 한인회의 문제점들인 낮은 참여도와 비민주주의 행정을 개선해야 한다.

고질적 문제인 한인들의 낮은 참여도는 구조 자체를 바꿔 의미 있는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시드니 한인사회를 10-20 개 정도의 구역으로 나눈 후 각 구역에서 지역 회장단 선출하고 그리고 따로 시드니 한인 회장단을 선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한인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10-20 배 늘릴 수 있고 결론은 책임과 의무들을 분배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훌륭한 인물들이 검증될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하는 것이다.

다음은 행정의 민주화이다. 민주주의의 기본 개념은 모든 사람이 사회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가능하였던 때는 소수의 지배층으로 형상 됐던 고 헬라 시대뿐이었다.

그래서 발달한 것이 지도자 선출 선거와 법치주의와 삼권분리 개념 들이다. 우리 한인사회도 이 개념들을 응용하자는 것이다.

피선 거자 기준을 지금의 기준에서 비껴야 한다. 돈 기준을 중요시 하는 기준은 로마시대 말에 돈으로 황제 자리를 사던 제도를 연상시킨다. 좋은 인물을 선출시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개념과 너무 배치된다. 멜본 한인회의 경우는 지난 5 년 회비를 연속 납부한 사람에게 회장 피선거권을 주고 있다. 참고할 만하다.

법치주의는 말 그대로 지도자의 개인 능력보다는 만들어진 공포된 법에 따라 사회를 운영하는 제도이다. 그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의 사법부, 그러니까 재판관 성격을 가진 심판들이다. 그래야 선출된 대표들의 악행을 막을 수 있고 각 기관들간의 마찰을 중재할 수 있다.

사회에서 공정 받는 사람들을 심판으로 (호칭은 치안판사?) 선출하여 한인회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지혜롭고 공정하게 중재하고 필요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다. 이들을 종이 호랑이로 만들면 무의미하기 때문에 회장단마저 해체할 수 있는 권력을 그들에게 주어야 할 것이다. 다만 그들은 감사원처럼 직접 감시하는 기구가 아니고 회원 누군가가 호소를 할 경우에만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결정은 주로 만장일치여야 할 것이다.

삼권 분립이 필요한 이유는 권력이 한 사람이나 한 패거리에 모이면 악용이 되기 때문이다. 사법부를 통한 조화와 전제는 그래서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은 나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다. 다만 누군가 시작하지 않으면 지금의 상황에서 한 치도 벗어나기가 어려워, 우리들의 건전한 토론을 시작하기 위해 내 의견을 제시해 본다.